

이광수 장편 소설 『재생』의 정치 시학적 특성 연구

김병구(숙명여대) *

〈목 차〉

- | | |
|-------------------|------------------|
| 1. 들어가는 말 | 3. 자기 위한 감정의 내면화 |
| 2. '자기희생적' 삶의 자연화 | 4. 끝맺는 말 |

1. 들어가는 말

이광수의 장편 소설이 식민지 시기 전체를 통틀어 모든 계층의 독자에게 가장 대중적으로 읽혀졌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무정』, 『흙』, 『사랑』과 더불어 이광수의 4대 장편소설의 하나로 꼽히는 『재생』(『동아일보』, 1924년 11월 9일~1925년 3월 12일 및 1925년 7월 1일~9월 1일) 또한 대중적 인기의 측면에서 예외는 아니었다. “東亞日報上에 連載될 때 얼마나 많은 學生(그 中에서도 女學生)이 新聞 配達夫를 마치 情人이나 기다리듯 기다렸으며, 서로 小說의 展開를 토론하며 슬퍼하고 기뻐하였던가”¹⁾라는 김동인의 회고

* 본 연구는 숙명여자대학교 2011학년도 교내연구비 지원(연구과제번호 1-1103-0758)에 의해 수행되었음.

적 진술만 보더라도, 연재 당시 『재생』²⁾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짐작할 만하다.

그러나 『재생』의 이와 같은 대중적 인기는 다른 한편으로 『재생』에 대하여 당대의 비평가들로 하여금 ‘홍미본위’로 쓰여진 ‘통속소설의 전형’이라는 부정적인 딱지를 붙게 만든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재생』에 대하여 이러한 견해를 밝힌 당대의 대표적인 비평가로 김기진을 들 수 있다. 그는 「문단시대관 단편-통속소설 소고」에서 “돈과 사랑과 이것으로 말마암아 일어나는 갈등을 그리는 소설이라야만 독자 대중을 획득할 수 있다”는 춘원의 말을 근거로 들어 『재생』을 ‘보통인이 사회와 인생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견문의 한계를 초월하지 않는’ 통속소설의 본질에 딱 들어맞는 작품으로 평가하고 있다.³⁾ 『재생』의 서사는 ‘돈’의 욕망에 사로잡혀 사랑과 신의를 저버리고 성적으로 타락한 끝에 자살로 삶을 마감하는 김순영이라는 젊은 여성의 비극적 삶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사랑하고, 탄식하고, 슬퍼하고, 기도하고 원망하는 것의 연쇄인 센티멘탈리즘’⁴⁾에 기초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김기진이 인용한 이광수의 말마따나 『재생』은 대중이 원하는 바를 충족시키고 있는 통속소설의 본질에 부합하는 작품이라 할 수 있다. 더욱이 『재생』이 연재되던 1920년대 중반 사회 문화적 담론의 장에서 구도덕에 대한 저항의 성격을 지녔던 연애의 의미가 ‘육체와 성’을 강력하게 환기시키는 용어로 의미론상의 변화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애’가 ‘독자들의 최대 관심사이자 흥밋거리’⁵⁾된 때였다는 시대적 문맥⁵⁾을 고려한다면, ‘사랑이나 돈

- 1) 김동인, 『春園研究』, 신구문화사, 1956, 68면. 『재생』을 비롯한 이광수 장편소설에 대한 당대의 인기가 어느 정도였는지는 실증적인 자료를 통해서도 입증된다. 가령 <한성도서>, <이문당>, <막문서관>, <영창서관> 등 1930년대 조선에서 가장 큰 서점이자 출판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한 보고에 따르면, 「무정」, 「개척자」, 「재생」 등이 출판된 지 오래되었지만 4천 부 가까이 판매되었다고 한다. (『서적시장 調查記-漢圖·以文·博文·永昌 등 書市에 나타난』, 『삼천리』 7권 9호(1935년 10월)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299면에서 재인용.)
- 2) 이 논문에서는 『李光洙全集』:2(삼중당, 1963)에 수록된 『재생』을 기본 텍스트로 삼는다.
- 3) 김기진, 『金八峯文學全集』:1, 문학과지성사, 1988, 117-119면 참조. 김기진은 인용한 이광수의 발언은 이광수, 「文壇諸家の 見解-問題中 大問題 國文讀者의 遞減」(『中外日報』 1928. 8. 4)에 나온 것이다.
- 4) 김기진, 앞의 글, 116면.
- 5) 1920년대 중반이 되면 영육일치로서 사랑이라는 관념은 깨지고, 신성한 연애와 속연애의 구분이 형성되고 남녀교제는 언제든지 여성을 남성 육육의 희생물로 만드는 영역으로 간주

이나라는 갈등을 축으로 전개되는 『재생』의 서사를 대중의 욕망에 부합해 들어간 ‘흥미본위’의 통속소설로 보는 것은 무리한 견해라 할 수 없을 터이다.⁶⁾

문제는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정작 이광수 본인은 『재생』을 ‘흥미본위’의 ‘통속소설’로 보는 견해를 적극적으로 부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자신은 결코 독자의 즐거움을 위해 ‘윤리적 동기’가 없는 ‘흥미 본위’의 소설을 써 본 일이 없다는 이유를 들어 『재생』을 ‘통속소설의 전형’으로 보는 김기진의 견해를 반박한다. “사랑 이외에 더 큰 일이 있다”⁷⁾는 것을 말하고자 했기 때문에 『재생』을 비롯한 자신의 작품을 통속소설이라고 하는 견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이광수 자신의 입으로 독자 대중을 얻기 위해서는 대중의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는 소설을 써야 한다는 것을 강조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자기 작품에 대해서는 창작 동기의 정당성만을 내세워 『재생』을 통속소설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는 것은 지극히 자의적일 뿐만 아니라 이율배반적이라고까지 할 만하다. 그렇지만 『재생』에 대한 이광수의 이러한 자기변호 논리가 설혹 이율배반적이라 하더라도 『재생』의 서사적 의미를 해석할 때 작가의 창작 의도를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 작가의 기획 의도는 서사의 인식론적 구조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일차적인 요소이기도 하거니와 나아가 서사에 함축된 정서적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석하는 데 있어서 기본 전제 조건이 되는 사안이기도 하기 때문이다.⁸⁾

된다. 그래서 연애는 구질서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병리적인 사회문제의 중심에 놓이게 되었다.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304~307면 참조.

6) 통속적 성격 때문인지 『재생』에 대해서는 이광수의 다른 장편소설에 비해 상대적으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지금까지 『재생』에 관한 논의의 대부분은 『재생』이 지닌 ‘통속적’ 성격을 전제로 하여 장르적 특성을 구체화하거나 그것이 계몽 이념과 맺고 있는 상관성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재생』에 관한 대표적인 논의로, 김윤식, 『문단에 다시 나서다-장편 『재생』(『이광수와 그의 시대』2, 숲, 1999), 정혜영, 『李光洙와 幻影의 近代文學-〈재생〉을 중심으로』(『한국현대문학연구』, Vol.10, 2001), 간자 치마코, 『이광수의 『재생』 연구』(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한국현대문학연구』, Vol.5 No2, 2004), 김지영, 『1920년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자아’와 ‘육체’의 문제』(『한국현대문학연구』, Vol.16, 2004),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 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우리말글』, Vol.46, 2009), 이혜령, 『正史와 情史 사이 : 3.1운동, 후일담의 시작』(『민족문학사연구』4호, 2009),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現代文學理論研究』, Vol No2, 2012) 등을 들 수 있다.

7) 이광수, 『『革命家の 아내』와 某家庭』, 『李光洙全集』16, 삼중당, 1963, 277면.

8) 테리 이글턴(T. Eagleton)에 따르면, 개별 작품은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로 이루어진

이와 같은 맥락에서 본 연구는 『재생』을 서사의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 사이의 변증법적 연관성 속에서 고찰하는 데 일차적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이광수가 이율배반적이게도 『재생』을 통속소설로 보는 견해를 반박하는 논리적 근거로 제시한 ‘윤리적 동기’의 정치 시학적 함의를 밝히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데 본 연구의 궁극적인 목적을 둔다. 본 연구의 이와 같은 근본 취지는 이광수의 이율배반적인 소설적 글쓰기 실천이 무지하고 불쌍한 민중의 계몽이라는 정치 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광수 자신 소설 쓰는 행위를 ‘여기(餘技)’로 치부하면서 자신이 ‘문사(文士)’로 일컬어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거부했다⁹⁾는 점에서 무엇보다 그의 소설은 민중 계몽의 정치적 담론의 구성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는 곧 이광수의 소설에는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¹⁰⁾가 내장되어 있음을 의미하는데, 바로 이러한 민중과 지식인 계급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어떤 정서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일은 그의 소설을 이해하는 데 관건이 되는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이광수가 ‘윤리적 동기’란 말로 정당화하고 있는 『재생』의 서사는 민중과 지식인 계급 사이의 정치적 역학 관계가 니체가 말한 ‘원한’의 감정¹¹⁾을 기저에 깔고 형성되고 있음을 여실히

다. 인식론적 구조란 특정한 세계 또는 특별한 주제를 재현하거나 묘사하기 위한 의도로 정의된다. 이에 반해 정서적 구조는 작품에 재현된 세계가 조직되는 무의식적인 선택성과 폐쇄로 정의된다. 여기서 정서적인 구조는 주체-정향적(subject-oriented)인 특성을 지니기 때문에, 개인 및 그 개인이 속하고 있는 집단의 상대적인 일관성이나 입장을 확증하는 의지나 욕망의 산물로서 파악된다. 따라서 역설적으로 작품의 표층에서 공공연하게 표명되는 인식론적인 구조는 그 심층의 정서적 구조에 종속되게 된다. T. Eagleton, "Ideology, Fiction, Narrative", *Social Text*, vol2 (1979 summer), pp. 62-64 참조.

- 9) 이광수, 「余의 作家的 態度」, 앞의 책, 195면.
- 10) 『재생』이 집필된 시기를 전후로 하여 이광수는 ‘중추계급’으로서 지식인이 민중에 대하여 가져야 할 사명을 강조한 논설을 집중적으로 발표하고 있다. 이런 지식인과 민중 간의 역학 관계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논설로, 「中樞階級과 社會」(『開闢』, 1921년 7월), 「國民生活에 對한 思想의 勢力-르봉 博士 著 <民族心理學>의 一節」(『開闢』, 1922년 4월), 「民族改造論」(『開闢』, 1922년 5월), 「民族的 經綸」(『동아일보』, 1924년 1월2일~1월 6일) 등을 들 수 있다.
- 11) 니체에 따르면, “도덕에서의 노예 반란은 원한(ressentment) 자체가 창조적이 되고 가치를 낳게 될 때 시작된다. 이 원한은 실제적인 반응, 행위에 의한 반응을 포기하고, 오로지 상상의 복수를 통해서만 스스로 해가 없는 존재라고 여기는 사람들’의 감정이다. 그런데 이런 노예의 도덕은 “처음부터 ‘밖’에 있는 것’, ‘다른 것’, ‘자기가 아닌 것’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이야말로 노예 도덕의 창조적인 행위인 것이다. 가치를 설정하는 시선을 이렇게 전도시키는 것-이렇게 시선을 자기 자신에게 되돌리는 대신 반드시 밖을 향하게 하는 것-은 실로 원한에 속한다.” F. 니체, 김정현 역, 『선악의 저편·도덕의 계보』, 책세상, 2002, 367면. 그런

보여준다는 점에서 분석을 필요로 하는 작품이다. 『재생』의 서사적 의미를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의 변증법적 연관 속에서 탐색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한 것이다.

2. ‘자기희생적’ 삶의 자연화

통속적이라고 평가받는 『재생』의 서사를 이광수가 밝힌바 ‘윤리적 동기’에 의해 의도적으로 포치된 것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면, 이광수가 『재생』을 ‘흥미 분위’의 통속소설과 구별 짓는 핵심 근거이자 그 서사적 기획의 근원으로 강조하고 있는 ‘윤리적 동기’가 무엇을 뜻하는지 새삼 살펴보지 않을 수 없을 터이다. 이 물음에 대해 이광수는 『재생』을 비롯한 자신의 소설을 통속소설로 보는 견해를 부정하는 맥락에서 “내가 小說을 쓰는 究意의 動機는 내가 新聞記者가 되는 究意의 動機, 教師가 되는 究意의 動機 내가 하는 모든 作爲의 究意의 動機와 一致하는 것이니, 그것은 곧 「朝鮮과 朝鮮民族을 爲하는 奉仕-義務의 履行」¹²⁾이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에 근거하면, 이광수가 『재생』을 비롯한 자신의 소설들이 ‘흥미 분위기’의 통속소설과는 다르다는 차별화의 근거로 말한 ‘윤리적 동기’란 곧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을 뜻한다. 그러니까 김순영이라는 젊은 여성의 타락과 파멸의 과정을 서사화하고 있는 『재생』은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의 관점에서 다시 읽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재생』의 서사적 기획의 근원에 해당하는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이라는 ‘윤리적 동기’는 어떻게 구체화되어 드러나고 있는가. 『재생』의 집필을 앞두고 이광수가 「작자의 말」을 통해 밝히고 있는

데 『재생』에서는 밖을 향한 이 ‘원한’의 감정이 한층 심화된 형태로 지식인 주인공 ‘신봉구’ 자신에게로 향하고 있다. 니체는 이처럼 한층 심화된 원한의 감정을 조상에 대한 상상상의 ‘부채의식’에서 기원하는 ‘죄의식’ ‘양심의 가책’과 관련지어 설명한다. 앞의 책, 413~416면 참조. 『재생』의 서사는 바로 이와 같이 한층 심화된 형태의 자기 원한 감정을 바탕으로 깔고 구축되고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에 대해서는 3장에서 자세히 논의될 것이다.

12) 이광수, 앞의 책, 195면.

아래의 인용을 “만세 운동 이후 1925년경 조선”의 “청춘계급의 사실적인 일 단면”을 드러내 보이고자 했다는 『재생』과 관련된 이광수의 또 다른 진술과 겹쳐 읽는다면 이 물음에 답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다.

나는 이 말을 미리 여러분의 앞에 하여 둔다. -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동정과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여 이것을 씁니다고, 지금 내 눈앞에는 별거벗은 조선의 강산이 보이고, 그 속에서 울고 웃는 조선 사람들이 보이고, 그중에 조선의 운명을 맡았다는 젊은 남녀가 보인다. 그들은 혹은 황금의, 혹은 명예의, 혹은 이상의 불길 속에서 웃고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죽이고 죽고 한다. 이러한 속에서 새 조선의 새 생명이 아프게, 쓰리게, 그러나 쉬임없이 돌아오른다.--이런 것이 지금 내 눈앞에 보인다. 그러나 내 소설은 어떤 것이 될는지 미리 알지 못한다. 나는 <先導者>를 중편까지만 쓰다가 경무국의 불인가로 중지하고 <金十字架>를 쓰다가 사정으로 중지하였다. <金十字架>를 계속하려 하였으나 <再生>을 쓰기로 하였다. 그것이 쓰고 싶기 때문이다.¹³⁾

이 인용문으로 미루어 볼 때, 『재생』은 만세 운동 직후를 시대적으로 배경으로 하여 ‘조선의 운명’을 책임져야 할 지식 청춘 계급이 조선의 피폐한 현실, 즉 ‘별거벗은 조선의 강산’을 개선해야 할 의무를 망각한 채 ‘황금’과 ‘명예’가 표상하는바 세속적 욕망의 포로가 되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갈등하면서 타락한 삶을 영위해 나가는 모습을 서사화하고자 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들 지식 청춘 계급이 자신들의 타락한 삶을 극복하고 ‘조선과 조선 민족의 봉사-의무의 이행’ 차원에서 ‘새 조선의 새 생명’의 가능성을 열어보이고자 하는 데 『재생』의 서사적 기획의 근원이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은 『재생』의 서사적 기획은 학생 신분으로 ‘기미년 만세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인연을 맺었던 두 청춘 남녀, 김순영과 신봉구가 과거 ‘나랏일’을 위해 헌신한 삶의 대의를 잊고 결혼 문제로 서로 반목하고 갈등하면서 타락한 삶을 영위하다가 ‘재생’의 삶을 찾아나가는 연에서사로 구체화된다. 이들 두 남녀가 결혼 문제로 갈등하며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 배후에

13) 앞의 책, 270면.

‘돈’으로 상징되는 ‘훼손된 가치의 세계’가 작용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삼년 간 감옥살이의 고초를 겪으면서도 오직 자신만을 사랑했던 신봉구를 기만하고 조선의 거부 백윤희가 가진 돈의 힘에 이끌려 그의 성적 노리개로 전락하여 ‘거짓된 생활’을 하다가 결국 파멸해가는 김순영의 삶이 『재생』 서사의 한 축을 이루고 있다면, 조선을 사랑한 이유이자 자신의 존재 이유이기도 했던 김순영이 ‘돈’의 유혹에 넘어가 자신과 맺은 신의를 저버리고 백윤희를 택한 것을 알고서는 ‘나라를 위한 헌신과 의무’를 버린 채 그녀에 대한 복수의 화신이 되어 김영진으로 자신의 이름조차 위장하고 ‘인천 마루김 미두취인 중매점’ 사환으로 들어가 돈 버는데 몰두하는 신봉구의 삶이 『재생』 서사의 또 다른 한축을 형성하고 있다. 신봉구가 미두취인 중매점 주인을 살해한 주범으로 몰려 법정에서 사형을 선고받고 위기에 처하게 되는 사건을 계기로 이 두 축이 서로 얽혀 들어가면서 『재생』의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

이처럼 청춘 남녀의 결혼과 애정 문제를 둘러싸고 벌어지는 구애와 갈등, 배신과 용서, 오해와 죽음을 기본 내용으로 하여 서사가 전개되고 있다는 점에서 『재생』은 지극히 통속적이라고 볼 수 있다.¹⁴⁾ 그런데 『재생』의 서사 전개 과정에서 김순영의 배신이 ‘돈’에 대한 신봉구의 사적인 분노와 원한을 촉발하게 되고, 그로 인해 그가 조선을 위한 의무와 헌신이라는 삶의 대의를 잊고 그 자신 그토록 부정해마지 않았던 돈을 버는데 몰두하게 되는 타락의 길로 나아가는 데 결정적인 계기가 되고 있다는 사실은 특별히 주목해 보아야 할 대목이다. 이는 작가가 『재생』의 서사에서 김순영과 신봉구로 표상되는 지식 청춘 계급의 타락한 삶을 문제화하고는 있지만, 특히 김순영의 타락한 삶, 그녀의 ‘더럽고 거짓된 생활’을 진경화하고자 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재생』의 서사가 순영이 백윤희와의 약혼 사실을 숨기고 봉구와 금강산으로 여

14) 서영채, 『韓國 近代小說에 나타난 사랑의 樣相과 意味에 관한 研究』, 서울대박사논문, 36면. “봉구는...(중략)...<금색야채>라는 일본소설에 나오는 주인공 「하자마 강이찌」를 생각한 것이다. 그는 가끔 자기를 ‘강이찌’에게 비겨본다. 비겨 보면 어떻게든 그렇게도 같은가 하고 감탄하게 된다. 그러나 「강이찌」가 왜 그렇게만 「오미야」에게 원수를 갚았나, 왜 더욱더욱 철저하게 통쾌하게 시원하게 갚지를 아니했나 하였다.”(이광수, 『재생』, 『李光洙全集』2, 삼중당, 1963, 138면)에서 알 수 있듯이, 『재생』은 돈의 유혹에 빠져 사랑을 배신하는 ‘오미야’와 자신을 배신한 ‘오미야’에게 복수하려는 ‘강이찌’의 삶을 그려 신파적 눈물을 자아냈던 오자키 고요의 통속소설 『금색야채』를 노골적으로 차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광수의 여타 장편 소설보다도 특히 통속성이 짙은 소설로 평가된다. 김윤식, 앞의 책, 143~146면 참조.

행을 떠나는 것으로 시작하여 봉구에게 자신의 행위를 속죄하는 마음으로 백윤희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소경 딸과 함께 금강산 구룡연에 몸을 던져 죽는 것으로 종결되고 있다는 것이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김순영의 삶이 자신의 타락한 삶을 정리하고 ‘전곡’이라는 농촌에서 새로운 삶을 일구어나가는 신봉구의 모습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것도 이러한 작가의 의도를 방증해 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당연히 김순영을 헤어나올 수 없는 타락의 길로 이끌어 중국에는 스스로 자살하게끔 만든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재생』 서사의 인식론적 구조를 이해하는 데 핵심적인 사안이 될 터이다. 순영의 ‘더럽고 거짓된 생활’ 자체가 스스로 목숨을 끊을 만큼 필연적인 이유는 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면 순영이 자살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한 이유는 무엇인가. 사실 김순영은 ‘서울 장안에서 이름을 모를 사람이 없을 만큼’ 빼어난 외모로 못 청년들의 이목을 끄는 인물이다. 용모만 빼어난 것이 아니다. ‘돈과 육의 쾌락’을 맛본 뒤 백윤희의 첩살이를 하면서부터 그녀의 삶은 끊임없이 나락으로 추락해가긴 하지만, 순영이 본래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다. 오빠 순홍의 영향으로 ‘기미년 독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옥고를 치른 경험도 있거니와, 부모와도 같은 미국인 P 부인의 헌신적인 모습에 감화를 받아 자신도 ‘인격이 높은 교육자가 되어 불쌍한 조선 여자들을 교육하려’는 신념을 지닌 이화학당의 주목받는 여학생이었다. 그런 그녀이기에 둘째 오빠 순기의 계약에 속아 넘어가 백윤희의 대저택을 방문하여 그 화려함을 보고는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면서도, 한편으로 백윤희로 표상되는 돈을 혐오하기까지 하는 속내를 내비치며 흔들리는 마음을 다잡으려 한 것이다. 돈의 유혹에 흔들리기는 하지만 이것은 지금까지 처녀성을 지켜 온 자기 ‘프라이드’의 원천이 되었던 어떤 도덕적 신념이 순영의 내면 한 켠에 작용하고 있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나 비록 그녀가 ‘돈’과 ‘사랑’ 사이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지를 놓고 저울질하다가 결국에는 ‘돈’을 택함으로써 ‘거짓된 생활’에 끝없이 빠져드는 빌미를 스스로 제공했을지라도, 백윤희로 표상되는 돈을 선택한 그녀의 행위는 그녀의 주체적인 판단에 따른 것이라기보다는 ‘알 수 없는 힘’의 작용에 의한 것이다. 작가가 이광수는 내면 한 켠에 자리하고 있는 순영의 도덕적 감화의 영향마저 무화시키며 그녀를 육체적 타락의 길로 이끈 이 ‘알 수 없는 힘’에 대하여 ‘독립

운동이 지나가고 사람들의 마음이 모두 식어서 나라나 백성을 위하여 인생을 바친다는 생각이 적어지고, 저마다 저 한 몸 편안히 살아갈 도리만 하게 된 바람”¹⁵⁾ 탓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작가는 순영으로 하여금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를 부여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설정한 명선주와 같은 신여성들의 타락한 삶의 모습을 아래와 같이 반복해서 환기시키고 있다.

“연애는 신성하지. 사랑만 있으면 나이가 많거나 적거나 본처가 있거나 없거나 상관 있나?”하는 것이 그들의 연애관이다. 이 연애관이 서로 같기 때문에 그들은 서로 친하는 것이다. 그 여자들은 대개 예수교회에 다녔다. 그들이 예배당에서 허락할 수 없는 혼인을 하기까지는 대개는 예배당을 다녔고 혹은 찬양대원으로 혹은 주일학교 교사로 예수교회 일을 보았다. 또 혹은 그들의 가정의 영향으로, 혹은 삼일운동 당시의 시대 정신의 영향으로, 그들은 거의 다 애국자였다. 만세 통에는 숨어다니며 태극기도 만들고 비밀 통신도 하고 비밀 출판도 하다가 혹 경찰서 유치장에도 가고 그 중에 몇 사람은 징역까지 치르고 나왔다. 그때에는 모두 시집도 안 가고 일생을 나라일에 바친다고 맹세들을 하였다. 그러한 여자가 서울 시골을 합하면 사오백명은 되었다. 그러나 만세열이 식어가는 바람에 하나씩 둘씩 모두 작심 삼일이 되어 버려서 점점 제 몸의 안락만을 찾게 되었다. 첨에 한 사람이 시집을 가 버리면 돈도 잘 쓰고 좋은 집에 아들딸 낳고 사는 것을 보면 그것이 부러운 맘이 점점 생겨서 하나씩하나씩 시집들을 가 버렸고, 아직 시집을 못 간 사람들도 내심으로는 펍 간질하게 돈 있는 남편을 구하게 되었다. “조선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는 것은 옛날 어렸을 때의 꿈으로 여기고 도리어 그것을 비웃을 만하게 되었다. “연애와 돈.” 이것이 그들의 정신을 지배하는 종교다. 그러나 이것은 여자뿐이 아니다. 그들의 오라비들도 그들과 다름없이 되었다. 해가 가고 달이 갈수록 그들의 오라비들의 맘이 풀어져서 모두 이기적 개인주의자가 되고 말았다. 오라비들이 미두를 하고 술을 먹고 기생집에서 밤을 세우니, 그들의 누이들은 돈 있는 남편을 따라 헤매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리하여 조선의 아들과 딸들은 나날이 조선을 잊어버리고 오직 돈과 쾌락만 구하는 자들이 되었다.¹⁶⁾

이에 따르면, ‘삼일 운동’ 이후 ‘조선을 위하여 몸을 바친다’던 ‘조선의 아들

15) 이광수, 『재생』, 『李光洙全集』2, 삼중당, 1963, 68면.

16) 앞의 책, 259~260면.

과 딸들이 ‘조선을 잊고’ ‘돈과 쾌락’만 추구하는 자들이 된 것처럼, ‘이년 전만 하더라도 처녀의 프라이드’를 갖고 ‘불쌍한 조선의 여성을 교육’하고자 했던 김순영 또한 이들과 별반 다르지 않게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이다. 그런데 『재생』의 서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순영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작가가 이처럼 시대의 흐름에 휩쓸려 들어간 탓으로 설명하면서도, 중국에는 그녀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는 것으로 서사를 종결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서사의 종결이 문제인 까닭은 작가가 부정적으로 그리고 있는 여느 ‘조선의 아들과 딸들이 아무런 문제없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듯, 순영이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것 또한 굳이 그녀를 자살로 내몰 필연적인 이유가 되지 않기에 그러하다. 그렇다면 이는 작가가 김순영의 ‘더럽고 거짓된 삶’에 대하여 의식적으로 단죄를 내린 것이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맥락에서 거듭해서 ‘거짓된 생활’을 일삼으며 타락해가는 순영의 내면에 그녀가 자살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만든 서사 내적 논리가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에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은 순영에게 자기 삶에 있어서 자궁심의 원천이 되었던 것, 즉 그녀에게 부모와도 같은 역할을 하였던 P 부인에게서 받은 ‘도덕적 감화’가 그녀가 ‘거짓된 생활’의 나락으로 빠져들 때마나 그녀의 내면에서 끊임없이 환기되고 있는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 이것이 명선주로 표상되는 ‘조선의 아들 딸’들과 마찬가지로 타락한 삶을 살아가는 김순영을 그들과 차별화하는 것인데, 순영이 자신도 어찌할 수 없는 ‘알 수 없는 힘’에 의해 거짓된 생활의 구렁텅이로 빠져들 때마다, 그녀가 받은 ‘도덕적 감화’는 그녀의 내면에 ‘양심’, 곧 ‘죄의식’을 환기하고 심화시키는 매개로 작용하는 것이다.

과연 자기는 벌써 두 남자에게 몸을 허해 버렸다. 인제는 자기는 정조를 말할 사람이 되지 못하였다. 그렇게 생각할 때마다 자기가 작년 가을까지도 지니고 온 처녀의 자랑과 깨끗함을 생각해서 슬펐다....(중략)...자기의 맑아 보이지 아니하는 양심을 보고 하늘과 땅에 대하여 면목이 없는 듯하였다. 「그래도 양심에 찢리는 것을 어찌해요, 정조한 반드시 이해관계만은 아니겠소,」 하는 순영은 가엾게 들렸다. 「양심, 그것이 사람의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먼지가 켜켜이 얹은 귀신 그릇입니다. 그 속에 빈대도 들어가고 쥐며느리도 들어가서 가끔

꼭꼭 찌르기도 하고 스멀스멀하기도 합니다. 그놈의 귀신 오장이를 번쩍 들어 내요, 내다가 혹 불어버리란 말이야. 그러면 아주 마음이 깨끗합니다. 그놈의 오장이를 끼도 다니는 사람은 밤낮 우는 소리만 하여서 인생을 슬프게 만들어 놓지요. 당신도 당장에 그놈의 먼지 앓은 양심 오장이를 내어 던져요.¹⁷⁾

인용된 글에서 알 수 있듯, ‘양심 오장이’ 따위는 내어버리라는 명선주의 말에서 순영은 정조를 버리고 ‘돈과 쾌락’을 선택한 자신의 행위에 대하여 심리적 위안을 얻는다. 그러나 한편으로 순영은 끊임없이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하여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순영이 자신을 책망하는 까닭은 그녀의 내면 한 칸에 자리잡고 있는 양심 때문임은 물론이다. 양심 곧 죄의식에서 발원하는 순영의 자기 책망은 ‘인천 마루김 미두 취인 중매점’ 주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법정에서 사형 판결을 받은 신봉구의 누명을 벗기려고 자청해서 한 증언을 부인함으로써 그의 죽음을 방기하였을 때 최고조에 다다른다.

이렇게 볼 때 순영의 내면 한 칸에 내재된 양심이 순간순간 고개를 내밀면서 그녀로 하여금 현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만든 것이라 할 수 있을 터이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시 한 번 주목해 보아야 할 점은 순영을 자살로 내몬 죄의식이 일찍이 그녀가 받아들인 교육이 그녀의 내면을 지배한 데에서 연유한 것이기는 하더라도, 순영이 ‘돈과 육의 쾌락’을 쫓는 자신의 타락한 삶을 명선주와 같은 타락한 인물의 매개에 의해 정당화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녀의 죄의식의 발로 역시 어떤 매개 작용에 의해 심화된 것이라는 사실이다. 즉 ‘이기적 개인주의’에 물들어 살아가는 사람들의 정반대편에서 있는 P 부인과 강인애와 같은 인물들의 엄격하고도 자기규율적인 삶이 반복적으로 환기되면서 순영의 죄의식은 더욱더 심화되어 간 것이다. 순영에게 도덕적 감화를 준 P 부인과, 순영이 유일하게 의지했던 동료이자 언니인 강인애는 ‘불쌍한 조선 여자의 교육’이라는 소명의식을 갖고 ‘자기희생적’으로 남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는 인물들이다. 그러기에 이들에게는 ‘제 욕심을 채우려고 애쓰는’ 이기적인 삶은 구원받을 수 없는 ‘죄악’일 수밖에 없다. 바로 이들의 소명의식이 끊임없이 순영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의 기능을 담당하면서 순영의 내면에 꿈틀거리는 양심과 죄의식을 심화시키고, 이것이 그녀

17) 앞의 책, 100~101면.

로 하여금 현재적 삶을 부정하게 만들어 결국 자살을 행하게 하는 주요한 계기로 작용하였던 것이다. 순영을 아꼈던 그녀들이지만 순영이 ‘더럽고 거짓된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하자 순영을 냉혹하게 외면하게 됨에 따라 결국 순영은 자살을 결심하고 금강산 구룡연을 찾아 나서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순영의 자살은 ‘이기적 개인주의’를 부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자기희생과 남을 위한 헌신적인 삶의 실천을 강조한 P 부인이나 강인애의 소명의식이 순영의 내면에 잠자고 있던 양심과 죄의식을 일깨우는 매개로 작용하여 그녀의 자기 책망을 심화시켜간 결과라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P부인과 강인애로 표상되는 자기희생과 남을 위한 헌신적인 삶의 태도가 지닌 역설에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왜냐하면 P부인과 강인애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한 이웃을 위해 헌신적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거짓된 생활’로 인해 괴로워하는 순영에게는 매우 무정한 태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다. 가령, 순영이 법정에서 봉구의 구명을 위해 한 자신의 증언을 스스로 부정함으로써 그가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게 되자 이를 자신의 탓이라 자책한 나머지 자신의 더러워진 육체와 영혼에 대하여 용서를 구하려고 P부인을 찾았을 때, P부인은 ‘나는 순영이 사정 다 들을 필요’가 없다며 ‘순영의 책임’만을 강조하며 냉정하기 그지없게 순영을 대하는데, 이는 P부인과 강인애로 표상되는 남을 위한 ‘자기희생적’ 삶의 신념이 지니고 있는 역설적인 성격을 방증해 준다. 이와 동일한 맥락에서 자살을 결심하고 금강산 구룡연을 찾아 나선 길에 우연히 마주친 강인애와 P 부인이 순영을 냉랭하게 대하는 것은 우연은 아닌 셈이다.

이와 같이 『재생』의 서사에서 순영을 자살로 몰아간 내적인 논리로 작용한 ‘자기희생적’ 삶이 내포한 역설적 성격이 문제일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것이 순영의 삶과 극명한 대비를 이루며 ‘새조선의 새생명’의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설정한 인물 신봉구의 그것과 궤를 같이한다는 데 있다. 앞에서 말했던 바와 같이, 신봉구는 자신이 존재하는 이유의 전부였던 순영에게 버림받고 복수의 화신이 되어 ‘돈’ 버는데 혈안이 되었다가 자신의 주인을 살해한 누명을 쓰고 사형을 당할 위기에 처하지만, 감옥 안에서 자신의 지나 온 삶에 대한 자기반성을 매개로 새로운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리고 사형에 처해질 순간 누명을 벗고 바깥 세상에 나온 그는 감옥에서 얻은 깨달음을 바탕으로

으로 지난 날 자신의 타락한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찾아 ‘전곡’이라는 농촌에서 ‘불쌍한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을 실천해 나간다. 이런 그의 모습과 태도는 P 부인의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 뿐만 아니라 만상창이가 되어 자신에게 용서를 구하러 온 순영을 외면하는 봉구의 냉정한 모습 또한 P부인의 그것과 유사하다. 신봉구가 감옥에서 깨달음을 얻는 장면에서 작가의 서술의 초점이 그의 내면에 맞춰지고 있다는 점에서 그는 작가의 서사적 비전을 담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¹⁸⁾ 이렇게 볼 때 ‘거짓된 생활’로 인해 파멸해가는 김순영의 삶을 문제의 대상으로 삼아 전개되는 『재생』의 서사는 바로 봉구의 행위와 실천으로 구체화되는 불쌍한 백성과 나라를 위한 자기희생적 삶을 정당화하고 자연화하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3. 자기 위한 감정의 내면화

『재생』은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더럽고 거짓된 생활’로 인해 스스로 파멸해가는 김순영의 삶을 서사적 문제의 대상으로 초점화함으로써 ‘나라와 불쌍한 이웃’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삶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순영의 도덕적 타락이 그녀의 성격에서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면서도, P부인과 강인애가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자기희생적’인 삶의 신념을 순영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죄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김순영은 스스로 자신의 현재적 삶을 부정하고 만다. 이것은 작가가 순영의 성적 방종과 거짓된 생활을 단죄함으로써 순영의 삶으로 표상되는 ‘이기적 개인주의’의 삶을 타자의 영역에 가두고자 하는 서사적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읽을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의 서사는 ‘자기희생적’ 삶의 신념과 실천을 자연화하기 위한 일종의 봉쇄전략¹⁹⁾에 의거

18) 『재생』이 전지적 작가 시점에 의해 쓰여졌음에도 불구하고, 봉구의 내부 시점을 사용하여 그를 반영자로 설정한 서술이 지배적이다. 이는 서술자의 감정적 동화가 봉구에게 기울어지게 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신봉구는 작가의 서사적 비전을 담지한 인물이라 할 수 있다. 홍혜원, 앞의 글, 81-83면 참조.

19) 프레드릭 제임슨에 따르면, 봉쇄전략(strategies of containment)이란 이데올로기의 기본 전략이다. 그것은 서사의 경계를 설정하고, 배제와 조작을 행하여 자신의 관심이라든지 사상

해서 전개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터이다. P부인과 강인애를 매개로 하여 순영의 내면에 환기되는 ‘자기희생적’ 삶의 신념이 그녀를 자살로 내모는 기능을 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자연화하는 『재생』의 서사전략은 출옥 후 신봉구가 ‘전곡’에서 다음과 같이 펼치는 ‘불쌍한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삶에 당위성을 부여하는 효과를 낳는다.

봉구도 혼자 누워 지나간 반생 일을 생각하고는 울기도 하고 탄식도 하였다. 비록 내 한 몸을 위한 모든 기쁨과 슬픔을 다 잊어버리고 죽다 남은 이 몸을 불쌍한 백성들을 위하여 바치기로 굳게 맹세한 얼음과 같이 차고 쇠와 같이 굳은 이 몸이라 하더라도 피는 여전히 뜨겁고 눈물은 여전히 흐르지 않는다. 지나간 삼년 동안에 봉구는 과연 기계와 같이 냉랭한 생활을 하여 왔다, 낮에는 노동하고 밤에는 자고 겨울에는 이 동네 저 동네를 돌아다니며 농사하는 백성들의 편지도 써 주고 또 원하는 이들을 모아 데리고 가가거겨 국문도 가르쳐 주고 그들과 같이 새끼 꼬고 신 삼으며 이야기도 하여주고 그리하다가 봄이 되면 다시 농사하기를 시작하였다. 만일 늙은 어머니만 안 계시던들 그는 전혀 집 한 간도 가지지 않고 아주 의지가 없는 사람이 되어 버렸을지도 모른다. -그처럼 봉구는 아주 일산상의 모든 행복을 떼어 버리려고 애를 써 왔다.-또 그대로 실행도 하여 왔다. 그러나 그러하는 삼년의 긴 세월에 그는 일찍 순영을 잊어버린 일이 있었던가.²⁰⁾

인용문은 살인 누명을 벗고 감옥에서 풀려난 신봉구가 도시 경성의 생활을 정리하고 자신의 모친과 함께 정착한 전곡에서 보낸 삼년 간의 생활을 작가가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대목이다. 신봉구는 매일 규칙적으로 노동을 하고, 무지한 백성들에게 글을 가르쳐주며 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일신상의 행복’을 버리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왔다. 비록 요약적으로 제시되고는 있지만, 이광수의 소설에서 신봉구와 같은 지식 계급의 청년이 농촌으로 내려가

을 자연적이며 전체적인 것으로 그럴싸하게 보이게 만드는 효과를 낳는다. 이를 통해 자신의 외부라든지 타자를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 곧 봉쇄전략인 것이다. 봉쇄전략은 재현의 대상에 형식적인 통일성을 부여하는 기능을 하며, 대상이 일체의 사회적, 역사적 관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으로 자족하고 있는 것 같은 효과를 주는 기능을 한다. F. Jameson, *The Political Unconscious*, Cornell University Press, 1980, pp.49~55 참조.

20) 이광수, 앞의 책, 338면.

‘백성’들을 일깨우고자 벌이는 계몽 활동은 그리 낯설지 않은 장면이다. 그것은 이미 이광수의 첫 장편 소설 『무정』의 주인공 이형식이 ‘삼랑진’의 ‘무지하고 가난한 민중’의 삶을 ‘문화의 향상과 교육을 통해 개선’하고자 하는 다짐의 형태로 표출된 바 있거니와, 『재생』에 이어 발표된 『흙』에서는 허승이 ‘살여울’이란 농촌에서 펼치는 행위들, 즉 ‘야학을 통한 한글 보급, 생산·판매·소비의 합리화를 도모하기 위한 협동조합의 조직화, 위생사상의 보급’ 등 농촌 계몽의 실험적 행위들로 구체화되어 나타나기도 한다.²¹⁾ 따라서 『재생』의 신봉구는 『무정』에서 이념적 당위의 형태로 제시된 이형식의 비전을 실천하고 있는 인물일 뿐만 아니라, 『흙』에서 구체화되고 있는 허승의 계몽 실험 행위를 미리 선취해 보여주는 인물이기도 하다.

이처럼 민중의 삶을 개선할 필요성을 역설한 계몽의 서사화가 이광수 소설의 일관된 문제틀이라고 하더라도, 인용문에서와 같이 신봉구가 보여주는 실천 행위 자체가 『재생』에서 그리 중요한 사안은 아니다. 『무정』이나 『흙』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민중을 위한 계몽 이념의 당위성을 제시하거나 그것의 실험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재생』 서사의 핵심 문제는 아니기 때문이다. 『재생』의 서사가 중요한 것은 『무정』이나 『흙』과 달리 ‘불쌍한 백성’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벌이는 신봉구의 자기희생적인 신념이 어떠한 정서적 구조에 바탕을 두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21) 이광수가 자신의 장편소설에서 그리고 있는 계몽 실천은 주로 농촌을 배경으로 무지한 농민을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여기에는 ‘도회의 노동자’에 대한 이광수의 뿌리 깊은 불신이 개입되어 있다. 예컨대, 이광수는 ‘예술과 인생’의 관계를 논하면서 인생의 최고 이상은 ‘인생의 생활 자신을 전부 예술화’할 필요성을 역설한 논설, 『藝術과 人生-新世界와 朝鮮民族의 使命』(『開闢』, 1922년 1월)에서 ‘도회의 노동자는 제 일을 하는 데서 얻는 예술적인 기쁨을 얻는 농부와 달리 오직 ‘돈’을 위하여 노예적 노역에만 종사’하기 때문에 ‘자포자기의 언어와 동작’을 가질 수밖에 없어 ‘개인적으로는 살인, 강도와 같은 죄악을 짓기 쉽고 ‘단체적으로는 동맹과공(同盟罷工)과 기타의 혁명적 파괴적 폭동’을 일으키기 쉬운 부정적인 존재로 묘사하고 있다. (이광수, 『李光洙全集』16, 삼중당, 1963, 38~39면 참조) 이와 같은 도시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재생』에서 성적 방종과 ‘거짓된 생활’로 인해 ‘매독과 일질에 걸려 배오개에 있는 정미소와 영등포 방직 공장 여공을 전전하다가 결국 자신의 지난 날의 삶을 속죄하기 위해 자살을 결심하고 신봉구가 있는 전곡을 찾은 순영의 비참한 모습으로 환기되고 있다. 이러한 도시 노동자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달리, 신봉구가 정착한 전곡과 같이 농촌은 ‘예술적 창조’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공간으로 이상화 낭만화되어 제시된다. 그런데 주목해 볼 것은 비록 농촌 공간이 이상화되어 제시되어 있는 듯하지만, ‘예술적 창조’가 금융 윤리에 입각하여 방법적으로 노동과 생활을 조직화하는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광수가 계몽 실험의 대상으로 설정한 ‘농촌’은 낭만적인 목가적 공간이 아니라 철저하게 근대성의 원리를 구현한 공간이라 할 수 있다.

『재생』에서는 신봉구의 ‘자기희생적’ 삶의 실천이 어떠한 정서적 기반 위에서 이루어졌는지 그 논리를 눈여겨보아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신봉구의 ‘불쌍한 백성’을 위한 ‘자기희생적’ 삶의 실천이 근대적인 의미에서의 세속 내 금욕 윤리에 입각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에 우선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근대적인 의미에서 세속 내 금욕 윤리의 가장 큰 특징은 인간의 감정과 감각에서 비롯되는 모든 세속적 욕망을 거부하고 자신의 삶 자체를 방법적으로 조직해나가는 데 있다. 인간이 육체적인 존재인 한 감각 및 감정 없이 살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 바로 일체의 욕망이 억압될 때 발생할 수밖에 없는 황량하기 그지없는 내면을 오직 근면한 노동을 통해 철저한 자기규율의 정신을 단련하여 자신의 생활을 기계와 같이 관리해나가는 데서 찾고 있는 것이 바로 세속 내 금욕 윤리인 것이다.²²⁾ 근대적 의미에서의 노동이 금욕적 도덕의식과 불가분의 관련을 맺고 있는 것은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는데, 전곡에서 삼 년 동안 ‘불쌍한 백성’을 위해 자기 ‘한몸을 위한 모든 기쁨과 슬픔’을 잊고 ‘일신상의 행복’을 떼어버린 채, 매일 규칙적으로 노동을 하면서 ‘얼음과 같이 차고’, ‘쇠와 같이 굳으며’, ‘기계와 같이 냉랭한 생활’을 해 온 신봉구의 삶은 이와 같이 개인적인 욕망을 억누르고 자기규율의 정신을 단련함으로써 생활을 조직해가는 세속 내 윤리 규범에 따른 삶을 표상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자신이 살아가는 존재 이유뿐만 아니라 조선을 사랑하는 이유조차 김순영을 사랑하는 데에서 찾았던 신봉구가 이처럼 철저하게 자기규율적 삶을 실천하게 된 까닭은 무엇이고, 그러한 봉구의 내적 변화를 정당화하고 있는 논리는 무엇인가. 봉구의 이런 내적 변화가 돈 때문에 자신의 사랑을 배신한 순영에게 복수하고자 세상을 저주하면서 오직 돈만 벌기 위해 ‘도적질이나 다름없는 미두까지’ 서슴지 않던 지난 날 자신의 타락한 생활에 대한 반성에서 비롯된 것임은 물론이다. 문제는 신봉구가 보여주는 자기반성의 양상이 세상을 향해 쏟아냈던 분노와 저주를 자기 자신에게로 돌리고 있다는 데 있다. 그러니까 자기 규율의 금욕 윤리에 입각하여 ‘불쌍한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봉구의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와 저주’에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

22) 今村仁司, 『近代の思想構造』, 人文書院, 1998, 137-142면 참조.

는데, 아래의 인용은 이러한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 감정에 기반을 둔 그의 금욕적 삶이 어떻게 정당화되고 있는지를 시사해주고 있으므로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참으로 봉구는 그 동안 세상을 원망하였거니와 세상에서 받은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여 보지 못하였던 것 같다. “그야 사람들이 나에게 물려준 것 가운데는 이런 감옥같이 좋지 못한 것도 있지만 대체로 보면 다 고마운 것들이다. 길 하나를 보아라. 그것이 몇천년 동안 또는 몇만년 동안에 우리 조상들이 밟아 만들어 놓은 것인가. 밥은 누가 내었나, 벼 심어 쌀 만드는 법, 집 짓는 법, 옷 짓는 법, 이 모든 것을 만들어 내고 지켜 오는 이들은 누구인가, 내 몸뚱이는 몇만년 몇만대 동안에 몇만 사람의 피와 살이 합한 것인가, 내가 추위와 별을 피하고 자라난 집은 뉘인가. 그것은 인류의 집이다. 내가 먹고 살아온 밥은 뉘 밥인가. 그것은 인류의 밥이다. 내가 걸어다니던 길이 인류의 길인 것은 말할 것도 없거니와 말이나 사랑이나 내가 가진 무엇이 인류의 것이 아닌 것이 어디 있나? 내 것이라 할 것이 어디 있나? 만일 인류의 모든 유산이 다 없고 내가 이 세상에 혼자 떨어졌다면 나는 그날로 죽어버렸을 것이다.” “그렇다! 세상을 원망할 아무 이유도 없다. 나는 오직 인류에게 빚을 진 사람이다. 그 빚이 얼마나 되나, 한없이 큰 빚이다. 인류의 한없는 사랑으로 내게 그네의 피땀의 유산을 물려줄 때에 오직 한 가지 부탁이 있었다. 그것은 그 유산을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하라는 뜻이다. 그런데 나는 이것을 잊었다!” 봉구는 옛 잘못을 바로 깨달을 때에 맛보는 기쁨과 슬픔을 동시에 깨달았다.²³⁾

인용문은 미두취인 중매점 주인 살해범으로 몰려 사형을 선고 받고는 삶을 체념했던 봉구가, 자신을 사랑하는 중매점 주인 딸 경주가 자신을 대신해서 살인죄를 뒤집어쓰고자 했다는 사실과 순영이 자신의 누명을 벗겨주기 위해 자청해서 증언을 해 주었다는 사실을 알고는 자기에 대한 순영의 ‘희생적 행위’와 경주의 ‘충성심’에 감격하여 그녀들을 혐오했던 자신을 부끄러워하면서 갑자기 살려는 의지를 보이면서 얻은 깨달음의 내용을 서술하고 있는 대목이다. 너무 작위적인 냄새가 나서 작가도 겸연쩍었는지 ‘봉구의 인생에 관한 태도는

23) 이광수, 『재생』, 『李光洙全集』2, 삼중당, 1963, 212~213면.

사오 일 내로 일변하였다'고 변명할 정도로 여기에 서술된 그의 깨달음은 사실 작가 자신의 생각을 그대로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 대목은 자기 규율적인 금욕 윤리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진 신봉구의 실천 행위가 기반하고 있는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의 감정이 무엇에서 비롯된 것인지를 파악하는 데 단서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주목해 보지 않을 수 없다.

인용문에 따르면, 신봉구가 감옥에서 얻은 깨달음의 핵심은 자신의 현재의 삶이란 오랜 기간 동안 '우리 조상들이 뱉아 만들어 놓은' 것, 곧 '인류의 모든 유산'에서 기원한다는 것, 그래서 자신은 '오직 인류에게 한없이 큰 빛을 진 사람'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르면, 자신은 모든 인류에게 무한한 빛을 진 사람이기에 '세상을 원망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원망해야 할 것이 있다면, 인류에게 진 빛을 망각하고 그동안 '빌어먹을 세상'을 원망했던 자기 자신인 것이다. 그리고 신봉구는 이런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 감정에서 '더 좋은 것, 더 많은 것을 만들어서 후손에게 전'해야 하는 의무감을 이끌어낸다. '전곡'이란 농촌에서 펼쳐는 그의 금욕적 삶의 실천이 이와 같은 의무감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임은 물론이다. 바로 여기에 '돈'이 지배하는 '빌어먹을 세상'을 향해 쏟아 냈던 신봉구의 원한 감정이 방향을 선회하여 자기 내면으로 향한 이유가 숨겨져 있다. 그러니까 '인류'에게 빛을 졌다는 부채의식이 그로 하여금 '빌어먹을 세상'을 향해 그의 증오와 반감을 바로 그 감정을 소유한 '자신에게 대한 격렬한 저주'로 나아가게 만든 것이다. 이제 "돈의 욕심과 연애의 욕심과 살려는 욕심과 따라서 나오는 모든 번뇌를 벗어난 봉구"에게 남은 일은 '돈 때문에 사람들의 영혼이 썩'어서 '살인과 전쟁과 욕과 미워함'으로 가득 찬 '낡은 세상을 고쳐서 새 세상을 만들어야 하는 의무'뿐이다.²⁴⁾ 이처럼 자기 자신에 대한 증오와 반감에서 비롯된 부채의식은 봉구를 '인류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한' 성인 성도와 같은 위치에 올려놓은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자기 규율에 입각한 신봉구의 금욕적 삶의 실천, 곧 '불쌍한 백성'을 위해 펼쳐는 그의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 감정에 그 기원을 두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신봉구의 '인류에게 사랑의 복음을 전하고

24) 신봉구의 깨달음이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논리는 '양심의 가책' 즉 '죄의식'이란 것이 공동체와 조상 사이에 설정된 '무언가에 대한 채무감' 곧 부채의식에서 기원한다는 니체의 논법을 연상시킨다. F. 니체, 앞의 책, 436~443면 참조.

인류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는 차원에서 펼쳐는 전곡에서의 삶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역전시킨 결과인 것이다. 이광수가 『재생』에서 개인적인 '사랑 이외 더 큰 일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자 했을 때, '더 큰 일'이란 표면적으로는 '자기희생적' 금욕 윤리에 의거해 펼쳐지는 '불쌍한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실천을 가리킬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서 '불쌍한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실천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가치를 전도시킨 바탕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일 수밖에 없다. 그러한 '불쌍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헌신적인 삶의 실천 자체가 현실의 자기 삶을 철저하고도 엄격하게 부정하는 원한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헌신적인 삶의 실천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현실적인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무정'한 힘으로 얼마든지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봉구가 김순영이 스스로 삶을 부정하는 것을 방조한 것은 '불쌍한 백성'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삶이 지닌 '무정'한 성격을 반증해 준다. 이런 점에서 작가 이광수가 『작가의 말』에서 "나는 내가 가진 모든 동정과 모든 정성과 모든 힘을 다하여" 『재생』을 쓴다고 했을 때, 그가 강조한 '동정'²⁵⁾이란 것도 사실은 '불쌍한 백성'을 위한 자기희생적 삶이 '무정'함의 원천이 되었던 자기 원한의 감정에 기원을 둔 것이라는 점에서 역설적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²⁶⁾ 따라서 『재생』이 서사의 인식적 구조의 층위에서 서사적 기획의 근원으로 내세운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이란 '윤리적 동기'란 또한 원한 감정의 산물에 지나지 않는다.

4. 끝맺는 말

지금까지 본고는 이광수가 『재생』을 비롯한 자신의 모든 장편 소설 기획의

25) 이광수는 '사회'를 '민족'으로 조직하고 작동하게 하는 원리, 즉 '사회적 공동성'의 만들어내기 위한 원리로 '同情'을 표나게 강조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정이란 '慈悲·獻身·寬恕·公益' 등의 '人道'에 가장 아름다운 행위가 나오는 원천으로 '나의 몸과 맘을 그 사람의 處地와 境遇에 두어 그 사람의 심리와 행위를 생각하여 주는 마음이다. 이광수, 『同情』, 『李光洙全集』1, 삼중당, 1963, 557면.

26) Audery Jaffe, Scenes of Sympathy, Cornell University Press, 2000, p.82.

근원으로 강조하고 ‘윤리적 동기’의 정치 시학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서를 마련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정치적 역할 관계가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재생』 서사의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의 연관성 속에서 살펴보았다. ‘윤리적 동기’란, 니체의 독법에 따르면, 세계와 삶을 부정과 긍정의 이분법적 가치 체계에 따라 구축함으로써 필연적으로 정치적인 의도를 내포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타자성’ 또는 ‘악’을 선형적으로 규정하기 때문이다. 『재생』의 서사는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는 이와 같은 ‘윤리적 동기’의 특성을 여실히 드러내 보여준다.

『재생』은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해가는 김순영의 타락한 삶을 서사적 문제의 대상으로 초점화함으로써 ‘나라와 이웃’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삶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작가는 P 부인과 강인애가 철저하게 내면화하고 있는 ‘자기희생적’ 삶의 신념을 순영의 내면을 비추는 거울로 작용하게 함으로써 그녀의 죄의식을 심화시키고 있다. 그 결과 김순영은 스스로 자신의 현재적 삶을 부정하고 마는데, 이것은 그녀의 성적 방종과 거짓된 삶을 단죄함으로써 순영의 삶으로 표상되는 ‘이기적 개인주의’의 삶을 타자의 영역에 가두고자 하는 작가적 의도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재생』의 서사는 ‘자기희생적’ 삶의 신념과 실천의 당위성을 자연화하는 효과를 낳고 있다.

한편, 이러한 자기희생적 신념은 작가의 서사적 비전을 담지한 인물 신봉구가 농촌 ‘전곡’에서 철저한 자기규율과 금욕 윤리에 의거하여 펼치는 ‘불쌍한 백성’을 위한 헌신적인 삶의 모습으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이런 신봉구의 자기 규율에 입각한 금욕적 삶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 감정에 그 기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 그것은 현실에서 느끼는 삶의 무력감을 가리기 위해 상정한 전 인류에 대한 상상상의 부채의식을 매개로 이루어진 실천이기 때문이다. 신봉구의 ‘불쌍한 백성’을 위해 헌신하는 삶의 실천이란 결국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의 감정을 전 인류에 대한 사랑으로 가치를 전도시킨 바탕 위에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 점에서 ‘불쌍한 백성’을 사랑해야 한다는 부채의식에서 행하는 실천 자체가 자신의 현재적 삶을 철저하게 부정하는 원한의 정서에 기반하고 있는 만큼, 헌신적인 삶의 실천의 대상이 되는 바로 그 ‘불쌍한 백성’들에게도 그것은 현

실적인 삶을 부정하게 만드는 ‘무정’한 힘으로 작용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생』의 서사가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표나게 강조하고 있는 ‘조선과 조선 민족을 위한 봉사-의무의 이행’이라는 ‘윤리적 동기’ 또한 현실을 부정하는 자기 원한 감정에 기반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참고 문헌〉

〈1차 자료〉

- 김기진, 『金八峯文學全集』 I, 문학과지성사, 1988.
이광수, 『李光洙全集』, 삼중당, 1963.

〈2차 자료〉

- 김경미, 『이광수 연애소설의 서사전략과 민족담론-『재생』과 『사랑』을 중심으로』, 『現代文學理論研究』, Vol. No2, 2012.
김동인, 『춘원연구』, 신구문화사, 1956.
김수진, 『신여성, 근대의 과잉』, 소명출판, 2009.
김윤식, 『이광수와 그의 시대』2, 솔, 1999.
김지영, 『1920년대 이광수 문학에 나타난 ‘자아’와 ‘육체’의 문제』, 『한국현대문학연구』, Vol.16, 2004.
박혜경, 『계몽의 딜레마: 이광수의 『재생』과 『그 여자의 일생』을 중심으로』, 『우리말글』, Vol.46, 2009.
사에구사 도시카쓰 외, 『한국 근대문학과 일본』, 소명출판, 2003.
이혜령, 『正史와 情史 사이 : 3.1운동, 후일담의 시작』, 『민족문화사연구』4호, 2009.
정혜영, 『李光洙와 幻影의 近代文學-〈재생〉을 중심으로』, 『한국연대문학연구』, Vol.10, 2001.
천정환, 『근대의 책읽기』, 푸른역사, 2003.
홍혜원, 『『재생』에 나타난 멜로드라마적 양식』, 『한국근대문학연구』, Vol.5 No2, 2004.
今村仁司, 『近代の思想構造』, 人文書院, 1998.
Eagleton, Terry. “Ideology, Fiction, Narrative”, Social Text, Vol.2, 1979 summer.
Jameson, Fradric, The Poltical Unconscious, Conell University Press.

【국문초록】

본 연구는 지식인과 민중 사이의 권력 관계가 구조화되는 양상을 『재생』의 인식론적 구조와 정서적 구조의 변증법적 연관성 속에서 고찰함으로써 이광수 장편 소설의 정치시학적 특성을 밝히는 단서를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재생』은 인식론적 구조의 층위에서 돈의 유혹에 넘어가 파멸해가는 김순영의 타락한 삶을 서사적 문제의 대상으로 초점화함으로써 ‘나라와 이웃’을 위한 ‘자기희생적’인 삶의 실천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자기희생적 삶의 실천 가능성은 작가의 서사적 비전을 담지한 인물 신봉구가 농촌에서 자기규율과 금욕 윤리에 의거하여 ‘불쌍한 백성’을 위해 펼치는 헌신적인 행위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신봉구의 자기 규율에 입각한 금욕적 삶의 실천은 자기 자신에 대한 원한 감정에 그 기원을 둔 것이기 때문에 현실 자체를 부정하는 효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역설적인 의미를 갖는다.

주제어 : 정치시학, 인식론적 구조, 정서적 구조, 자기 원한, 자기희생, 자기 규율, 금욕

【Abstracts】

A Study on Politics of in Lee Kwang Soo' Novel, {Revival}

Kim, Byeong-Gu

This essay aims to examine the characteristics of politics in Lee Kwang Soo' Novel through revealing the way the relation of poewr the intellectual class and the people is structuralized in the dialectic relation between a cognitive structure and a emotive structure of 『Revival』. The cognitive structure in 『Revival』 is built by presenting the possibility of practice of self-sacrificial life through the destruction of the tragic heroine, Sun-Young. This possibility of practice of self-sacrificial life is embodied by Bong-Gu's the act of self-discipline and austere for poor farmers, hero which is supported the vision of the author. But Bong-Gu's the act of self-discipline and austere for poor farmers produce the effect of denying the reality because it is based by self-ressentiment of Bong-Gu. In this sense, Bong-Gu's the act of self-discipline and austere for poor farmers is paradoxical.

Key words : politics, cognitive structure, emotive structure, self-ressentiment, self-sacrificial life, austere

이 논문은 2012년 12월 30일에 투고되었으며, 2013년 2월 4일에 심사 완료되어 2월 15일에 게재가 확정되었음.